

특별기고



김준연
광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는 이미 메타버스 시대에 살고 있다. 생소한 단어이지만 이제 일상속 깊숙히 자리하고 있다. 앞으로 메타버스 영역은 더욱 확장되고 결코 뗄 수 없는 세계가 될 것이다.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을 비롯해 온라인 게임, SNS, 플랫폼서비스, 네비게이션 등 메타버스는 게임 속 세계처럼 단순한 메타(meta)의 가상 세계만은 아니다.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인 실생활이 되고 있다.

실제로 이용자들이 게임과 업무 그리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가상공간 게임 플랫폼을 구축해 큰 성공을 거둔 로블록스가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부동산 플랫폼 회사는 아예 오프라인 출근을 없애고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중이며, 출근은 아바타가, 회의는 메타버스 속 사무

무슨 버스인지는 잘 모르지만 타긴 타야할 버스 ‘메타버스’

실에서 진행한다는 것이다. 최근 저커버 그 역시 페이스북의 미래는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이 될 것이라고 재차 확인한 바 있다.

이렇듯이 최근 국내외 기업들이 4차산업업을 주도할 분야로 메타버스를 꼽고 있다.

4차산업 주도 분야

3차원 초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메타버스는 20년 전에 공상과학 소설이었고, 10년 전에도 꿈이었으나 이제 현실로 다가왔다.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MZ 세대들은 미국의 로블록스와 포트나이트, 한국의 제페토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게임과 공연을 즐기기 시작했다.

5세대(5G) 이동통신과 증강현실(AR), 확장현실(XR),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 융합이라 할 수 있는 메타버스는 현재 나타난 엔터테인먼트 뿐만 아니라 제조업, 교육, 의료, 금융, 서비스 등 모든 산업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래 신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오는 세계 메타버스 시장규모가 현재 460억 달러에서 2025년 2,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22조원 규모에 이를 것

으로 예상했다. 시장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내 스타트업인 살린이 온라인 전시회 및 컨퍼런스 플랫폼 제작에 참가자의 아바타를 등장시키는 기술을 적용해 MICE 업계의 주목을 집중시키는 것은 이를 반증하는 사례로 보인다.

선진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과 기술, 디바이스 개발에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국내 통신사와 인터넷 회사 역시 메타버스 분야 진출을 위해 플랫폼 구축, XR콘텐츠 제작 진출에 적극적인 자세이나 선진국 기업에 뒤처진 양상이다. 이 점에서 정부가 작년말 메타버스 시대 혁신 전략인 ‘가상융합경제’ 전략을 마련한 것이 주목된다. 5년 내 가상융합경제 5대 선도국에 진입하고 30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한다는 내용이다.

최근에는 한국만 뉴딜 2.0(디지털 뉴딜 2.0)의 핵심 산업에 메타버스를 추가하고 개강형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고 디지털 휴먼, NFT(대체불가 토큰) 등의 기반기술과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할 계획이어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메타버스 산업은 어느 한 기업의 주도로 이뤄지지 않는다. 메타버스 플랫폼, 콘텐츠, 이동통신, 디바이스 등 여러 부분의

기업이 참여하는 새로운 생태계이며 정부 및 개인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특히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신기술이 국내에서 충분하지 않아 범국가적 차원의 전략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광주 싼감콘텐츠산업 준비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광주시에서는 메타버스의 핵심인 싼감콘텐츠산업의 거점기지로 조성된 광주첨단싼감콘텐츠큐브(GCC)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광주시는 메타버스를 주제로 제16회 광주에이스페어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 주최한다. 광주에이스페어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부터 5G,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방송 등 다양한 콘텐츠 기업들이 참여하는 콘텐츠 종합전시회이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메타버스 산업에 뛰어들어 국내 주요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며 메타버스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주제관을 선보인다. 콘텐츠 분야 중 사자는 메타버스가 제공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가능성을 탐색하고, 일반인들에게는 메타버스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사설

흑산공항이 건설돼야 관광 완성된다

신안 흑산도에 문화관광호텔이 개장되고 조각공원 등이 조성됐다. 전남도와 신안군이 관광 활성화에 본격 나서 인프라를 이같이 구축,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영록 지사는 “흑산도는 다양한 천주교 역사유적지, 아름다운 다도해 풍광과 어우러진 일주도로 등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이 있다. 흑산도 관광 활성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우리나라 대표 다도해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들어선 문화관광호텔은 전남도와 신안군이 31억 원을 투입해 기존 시설을 전면 개·보수한 것이다. 일 반 관광객의 머무르는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조각공원은 2014년 개장했지만 시설이 노후해 국비 등 6억 원을 들여 새 조형물을 보완하는 등 대대적 리모델링을 거쳐 재오픈했다. 세계 20여 나라의 철새를 활용한 조형물이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편

의시설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뿐 아니라 국가등록문화재인 흑산성당과 신유학해에 따른 정약전 유배지 등 천주교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흑산도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문화관광 시설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문제는 흑산도로 접근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교통수단인 항공기가 뜨지 못해 관광문화시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다. 흑산공항은 관광시설만이 아니라 현지인들의 응급의료를 위해서도 긴급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년도 공항을 착공했으면서도 흑산공항은 뒷전이 다. 다음달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착공 목표는 차질을 빚는다. 만시지탄이지만 반드시 공항이 건설돼 이 지역에 긴급 의료 상황 대비는 물론 관광이 크게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베일 벗은 캐스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광주형 일자리사업인 광주글로벌 모터스(GGM)의 신차 ‘캐스퍼’가 공개됐다. 현대자동차의 경쟁 스포츠 유틸리티로 올 하반기 출시된다. 캐스퍼를 통해 광주 일자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불이 지펴질 전망이다.

캐스퍼는 현대차가 19년만에 선보이는 경차다. 실용성과 안전성, 개성 있는 디자인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했다. 차명 은 스키이트보드를 뒤집어 착지하는 ‘캐스퍼’ 기술에서 영감을 받았다. 새로운 차급과 우수한 상품성으로 기존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바꾼다는 의지가 담겼다. 개성과 젊은 감성을 추구하는 전 세대를 타겟으로 디자인된 차량인 만큼 엔트리 SUV의 새로운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GGM은 올해 말까지 캐스퍼를 1만 2,000대 생산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생산량을 연 7만대까지 늘린다. 이로 인해 직접 일자리 1,000개, 간접 일자

리 1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GGM은 대한민국의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었다. 일자리 사업은 동종 업계 절반 수준의 임금을 받는 대신, 완성차 공장을 새로 지어 일자리를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했다.

캐스퍼는 ‘광주형일자리’가 맞을 올린지 2년만의 결실이다. 한국경제가 직면한 고비용·저효율 구조와 대립적 노사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한국경제의 재도약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있다. 23년만에 국내에 완성차 공장을 건립했다. 이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된다.

광주형일지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캐스퍼가 호평을 받아야 한다. 또한 광주형일지리의 핵심인 노사상생 유지도 중요한 부분이다. 지역사회의 일자리 부족 문제와 완성차 업계의 ‘고임금 저생산성’ 구조 개선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

기고



박혜정
순천시의원

순천지역 공립 고등학교의 경우 최근까지 민간 버스 운송업체와 학교간 계약을 체결, 통학버스를 운행해 왔다. 그런데 최근 일부 공립 고등학교에서 통학버스 계약을 하지 않아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교와 교육당국에 통학버스 운행 재개를 요구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 통학버스운행을 꺼리는 이유는 교통사고 발생 때 책임 소재와 이용 요금 정산에 따른 업무 증가 등을 꼽고 있으며, 특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중대재해법 시행도 학교의 계약 회피의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 중심의 버스 노선 개편방안을 제안한다. 지난 7월부터 순천시는 1,100원의 할인요금을 적용해 학생들에게 100원의 요금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책에 연이어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에는 학생 중심의 버스 노선을 맞춤형으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현재 순천시에 운행 중인 버스 노선은 학교를 등·하교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 학생들이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학부모가 자가용을 이용해 등·하교를 시키고 있어 맞벌이 가정에서는 아침마다 등교 전쟁을 치르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내버스 회사를 방문해 관계자와 면담하고 해결방안에 관한 의견도 들어 봤다.

현재 순천교통의 경우 하루 116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이용객 감소로 평소 106대로 감축운행을 하고 있다. 현재는 방학을 맞아 그통

학생 중심의 버스 노선 개편안 제안

안 이용하던 학생 수도 감소해 88대로 감축운행을 하고 있다고 한다.

동신교통의 경우 평소 54대의 버스가 운행하고 있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47대로 감축해 운행 중이며, 방학 기간에는 43대가 운행 중이라고 한다.

방학을 맞아 순천교통에서만 18대를 줄이고 동신교통에선 4대를 더 추가 감축 운행한다는 것은 평소 학생들이 이용이 많다는 것을 방증하는 일이기도 하다. 방학을 제외한 일정 시간대에 매일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분포로 봤을 때 학생들의 이용 비율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00원 버스가 시행되지 않았던 2020년 통계를 보면 초·중·고생의 비율이 15%를 차지하고 있다.

100원 버스가 시행된 현재는 더 많은 수의 학생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아침 등교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한 시간 정도는 학생 중심의 버스 노선으로 개편하거나 증편해 학생들의 거주지역과 학교간의 최단 거리 노선이 배정되면, 셔틀버스 문제로 학생을 통학

에 제기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버스회사들의 수입 감소로 버스 기사 또한 겨우 만급에 맞춰 근무를 하는 실정이며, 등·하교 시간대 지원신청 근무에 대한 인력 충원은 충분할 것이라는 것이 버스회사 노조 측의 판단이다. 물론 주 52시간 근무와 8시간 휴식 후 운행에 대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나갈 것인지는 보다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다.

순천시와 동신교통, 순천교통에서 학생 중심의 버스노선 추가 배정을 위한 수요조사와 소요예산 등에 관한 시와 버스회사 간의 협의가 잘된다면, 이미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100원 버스의 이용률 증가와 학생들의 통학권 보장 문제, 학부 모들의 아침 시간 여유를 찾아주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다른 지역의 운행사례를 살펴보고 해당 부서인 교통과와 운행회사, 버스회사 노조와 긴밀한 의견수렴을 해나간다면 좋은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지광장

지난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통해 그동안 음지에 숨어있던 디지털 성범죄가 수면위로 떠오르게 됐다.

텔레그램 사건의 가해자들은 성 인식이 낮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저질렀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동물의 털 손질, 단장을 뜻하는 단어 ‘그루밍(grooming)’에서 따온 말로 SNS나 채팅앱 등 온라인에서 빠르게 내적 친밀감을 쌓으며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한

후 성적취, 성매매와 같은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온라인 그루밍은 보통 SNS 등을 통해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인 후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그루밍 피해자들은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사실을 알아채더라도 그동안 쌓은 친밀감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들을 회유해 통제하거나 자신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으로 유출될까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지금까지 온라인 그루

인터넷 속의 검은 그림자, 온라인 그루밍

밍을 하더라도 강간, 성적착취물 제작과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를 처벌할 근거조차 없었다.

최근만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대화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유인하는 성인들에게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효과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신분을 속이고 수사할 수 있는 ‘위장수사’의 특례규

정을 신설해 더욱 효과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으며, 더 심각한 성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길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지금 인터넷의 어딘가에서도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범죄가 이뤄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그루밍 범죄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될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성범죄자들을 근절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마련됐고 우리 경찰도 온라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문소희 보성경찰서 경무계 순경

초강력레이저센터 구축 힘 모아야

기지수첩

지난해 호남인들의 간절한 염원에 도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구축사업의 나주 유치가 좌절된 이후 호남에 대형 국가 연구 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다.

호남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방사광가속기 같은 대형 연구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지역으로 첨단산업연구 낙후성이 고착화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남도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과 함께 ‘초강력레이저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초강력레이저센터는 기초과학과 반도체, 신소재 등 산업 전분야 연구에 적용가능한 핵심인프라다.

전남도와 나주시, 한전은 초강력 레이저센터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타당성 분석 용역을 완료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초강력레이저센터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 5억원이 최종 반영됐다.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정부 예산안에 포함됨에 따라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됐다.

이와 관련 명확한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액수 보다 국가 용역 사



김용현
정기부 기자

업비에 반영 됐다는 것은 진일보한 성과다”며 “공모시 지자체에서 건의·발굴한 사업에 대해 가점을 주는 추세를 봤을 때 초강력레이저센터가 국가계획으로 확정될 경우 유치전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은 과학기술뿐 아니라 국방, 경제, 의료분야 등에서 활용성이 무궁무진한 레이저 기술 시장 선점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초강력레이저센터는 한국에너지공단, 광주과학기술원, 나주 에너지밸리 등과 함께 미래 차세대 청정 에너지 개발에 핵심 역할을 할 시설로 초대형 연구시설이 없는 호남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전남도 등 관계기관들은 초강력레이저센터를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동력을 마련해 당위성 부각 등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3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수도 고장신고	121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전기고장 신고	123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응급의료센터	1339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안)
회장 朴哲弘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金善男	편집국장 姜聲秀
대표전화 062) 720-1000	국록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1-5323	
경치부 (062) 720-1060-62 경제부 (062) 720-1066-67 사회체육부 (062) 720-1050-53 사회 2부 (062) 720-1043 동부권본부 (061) 743-4200-01 문화부 (062) 720-1071 사전부 (062) 720-1040 기획팀사무 (062) 720-1045-46	편집부 (062) 720-1073 논설실 (062) 720-1006 전산실 (062) 720-1033 월간국 (062) 720-1007 판매국 (062) 720-1004 사업국 (062) 720-1011, 1099 광고국 (062) 720-1016-17 관리국 (062) 720-1012	기사제보 •TEL (062) 720-1050-53 •시외부광 010-5601-2219 •FAX (062) 720-1080 •E-mail jndn@chol.com 광고문의 •TEL (062) 720-1016-17 •FAX (062) 720-1020 •E-mail jnmi1000@hanmail.net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98 (사동)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